



임실군, 청소년 세대공감 봉사활동 진행

임실군 청소년문화의 집이 지난 18일 임실군노인복지관과 함께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자원봉사자 20여 명과 지역사회 연계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행사는 노인복지관에서 주관한 '세대공감 및 어울림 반짝 반짝 빛나는 시간'과 더불어 청소년문화의 집의 청소년 세대공감 봉사활동 '가치를 같이하는 카페' 운영이 함께 이뤄져 세대간 통합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청소년 자원봉사자가 참여하여 네일아트, 손마사지 봉사를 통해 1세대와 3세대가 소통하는 화합의 장을 이뤘다.

또한 광장에 마련된 '가치를 같이하는 카페'에서는 이동식 카페를 운영하고, 미숫가루를 비롯한 다양한 추억의 음료를 대접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다.

봉사에 참여한 이수진(관촌중) 학생은 "네일아트를 받고 기뻐하는 어르신들의 모습에 뿌듯함과 즐거움을 느꼈고 봉사활동을 통해 방학을 의미 있게 보낼 것 같다"고 전했다.

노인복지관 이용 어르신 전OO 씨(80)는 "네일아트도 받고 카페도 이용하며 청소년 자원봉사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니 즐거웠고, 잠시나마 젊어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심 민 군수는 "더욱 심화될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세대 간에 화합할 수 있는 노인 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고, 지역 어르신과 청소년의 만남을 적극적으로 포용하고 건강한 가치관을 가진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정읍시, 수원지역 청소년 초청 지역 역사문화 탐방

수원지역 청소년 20명이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2박 3일간 정읍을 방문해 정읍의 역사·문화를 체험했다.

정읍시와 수원시가 체결한 '청소년 우호 교류 협약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활동은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폭넓은 안목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역사와 문화 경험을 통해 지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정읍시 청소년문화체육관 청소년 지도사들이 인솔 교사가 되어 수원 청소년들에게 정읍의 역사가 깃들여 있는 명소부터 즐길 거리가 있는 체험시설 등을 안내했다.

방문단은 백제기요 정읍사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과 지역에 전해오는 설화, 민속지표, 현대기요 등이 전시된 정촌가 요복구를 방문하고, 천사 히어로즈를 찾아 흥미와 즐거움을 만끽했다.

또한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탐방에 나서 혁명의 시작과 전개 과정 등을 설명 들으며 동학혁명의 의의와 정신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정읍=김대환 기자



순창소방서, 주유중 엔진정지 캠페인 실시

순창소방서(서장 강동일)는 19일 관내주유소에서 유류 화재예방과 생활안전 실천을 위한 주유중 엔진정지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엔진을 끄지 않고 주유할 경우 엔진의 스파크가 주변에 체류 중인 휘발유 등 유증기에 착화하여 폭발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 및 계도하고 불필요한 공회전을 줄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에너지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주유소를 찾은 군민들에게 휘발유를 비롯한 인화점 40°C 미만의 위험물의 주유할 때는 반드시 차량의 엔진을 정지하도록 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내용과 위반 시 1차 25만원, 2차 4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기준의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군민들에게 나눠주며 캠페인을 전개했다.

송현호 예방안전팀장은 "주유 중 엔진정지 습관화로 화재 예방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 및 재산을 지키는 데 모두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목소리 재능 사회공헌활동으로

50+ 어른학교 낭독반 수강생들, 책 낭독본 CD로 제작·기증

전주시는 인생 2막을 준비하는 50+ 세대들을 위한 50+어른학교 과정 중 낭독반 수강생들이 시각 장애인을 위한 책 낭독본 CD 2천여점을 전라북도 접착도서관에 기증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날 기증된 CD는 장류진 작가의 저서인 '일의 기쁨과 슬픔'을 낭독해 CD로 제작한 것으로 5시간 20여분 분량으로 7장이 제작됐다.

특히 50+ 낭독반은 올해 상반기에 진행한 인생 후반기 50+ 플랫폼 사업인 '50+어른학교'의 '나를 만나는 시간' 낭독 프로그램 수강생과 강사 14명이 목소리 재능을 사회에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진행했다.

50+ 낭독반 수강생들은 수업 종료 후 낭독 커뮤니티를 형성해 올해 하반기 낭독 연습과 낭독 녹음을 통해 지속적인 낭독 사회공헌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낭독반 한 회원은 "나를 만나는 시간, 낭독 수업을 통해 사회공헌활동까지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에 감



사드란다"면서 "앞으로 목련리를 더 잘해서 저의 목소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권인숙 시 인문평생교육과장은 "50+ 세대들이 재능을 사회에 공헌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면서 "전주시도 50+ 세대들의 인생후반기 삶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장수군, 서울 도심 12개 지하철 역에 '장수물' 홍보·마케팅

장수군은 서울 도심 빌딩 및 롯데아파트 강남역 등 유동 인구가 많은 12개 주 지하철 역사 내 대형 LED 전광판에 장수물 광고를 송출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장수물 홍보 전광판이 있는 서울 도심 빌딩은 4개 구(성북, 강북, 도봉, 노원)와 의정부 포천시 진입 관문에 있는 유일한 전광판으로 인근 성신여대, 고려대 등 10개의 대학이 자리 잡고 있어 인구밀도가 높은 도양동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12개 지하철 역사는 시청역, 홍대입구역, 신도림역, 사당역, 강남역, 선릉역, 삼성역, 잠실역, 을지로입구역, 신사역, 고속차기역, 교대역사로 일 평균 78,900명이 이용하고 있어 높은 비용대비 큰 홍보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군은 서울 도심 지역 매체 홍보를 통해 '장수물' 판매 촉진뿐만 아니라, 장수물 입점농가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홍보 활동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최훈식 군수는 "장수군은 평균 해발 400~600m의 준고령



지역 큰 일교차, 청정한 자연환경 등 최적의 자연환경에서 사과, 한우, 오미자 등 고품질의 농특산물을 생산하는 지역으로 장수군의 좋은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장수군 지역 소평물인 '장수물'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교관호 기자

남원동북교회, 시에 3000만원 기탁금 전달

남원시는 남원동북교회 김병준 목사가 시를 방문해 지역사회의 저소득가구를 위해 사용해 달라며 현금 3천만원을 기탁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남원시 동충동에 위치한 동북교회는 1952년 9월 설립된 대한 예수교 장로회(통합)로 그동안 교회 신도를 비롯한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한 이웃돌기를 비롯해 어려운 시기가 닥쳤을 때 앞장서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이번 기탁도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로 지역주민들이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음에 도움이 필요한 곳에 베품과 사랑으로 도움이 되고자 전달하게 되었다.

기탁된 3천만원은 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정기탁 처리되었으며, 남원시 관내 독거노인, 장애인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



가구와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지원될 계획이다. 한편 남원시에서는 연중 이웃돌기를 접수 받아 관내 저소득가구에 도움을 주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정읍공동체활성화센터, 역량 강화 벤치마킹 나서

정읍시공동체활성화센터(이시장 이봉열)가 공동체 활성화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 지역 벤치마킹을 통한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주도 탐방에 나섰다.

이번 제주도 벤치마킹은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2022년부터 시민참여대회 뿌리 단계에 참여한 마을과 소규모공동체 회원, 공동체 활성화센터 직원 등 30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과거 유배의 섬 제주를 BIC 체험관으로 재탄생시킨 원도심 광혜군 '시간여행'을 시작으로 평대리 마을투어를 통해 공동체 활성화와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지역 간 유대감 증진을 위한 정보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또, 불하르방 미술관 보름와 농장 머제와 숲길 등 제주 원도심을 탐방하고, 마을공동체의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성공사례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남원새일센터, 국비 직업교육훈련 수료

남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19일 직업교육훈련 '맞춤형 노인생활지원사 양성 과정' 수료식을 가졌다.

이번 과정은 노인생활지원사를 희망하는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전문적인 돌봄서비스 교육을 통해 노인 돌봄인력 양성하고자 20명을 대상으로 172시간 교육을 진행했다.

훈련에 참여한 수료생은 "직업훈련을 통해 어르신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되었고, 현장에서 어르신의 필요에 따른 욕구 등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자신감은 물론 자신을 성장시키는 귀하고 즐거운 시간들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양근 센터장은 "수료 후에도 훈련생들과 지속적인 정보교류로 취업 연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대 일본어문화학과, 일본 2개 호텔 인턴십 파견

전주대 일본어문화학과는 올해 하반기에 일본의 특급호텔인 HILTON호텔 ANA호텔과 인턴십 협정을 체결하고 5명의 학생을 파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6개월의 파견 기간 동안 급여를 받으며 일본어는 물론, 문화를 습득하게 된다. 인턴십 종료 후 학점도 인정된다.

한편, 전주대 일본어문화학과는 J-EAT 통섭형 인재 양성사업을 운영하며 AI 분야 인재 외에도 로봇공학, 기계공학 등의 공학 전문가, 항공 승무원 지상 직원 등의 항공 서비스 전문가, 관광 가이드, 호텔리어 등의 호텔 관광 서비스 전문가 등 일본어 능력과 해당 계열의 전문성을 갖춘 멀티플레이어형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비전대, 미얀마 레이스 패밀리·양곤신학대 협약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정삼모)는 최근 미얀마 양곤 소재 그레이스 패밀리(Grace Family) 및 양곤 신학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효숙 국제교류원장, 김성범 과장, 에스더무 현지 객원교수가 참석, 양곤지역에서 미얀마 청년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레이스 패밀리(대표 이상열) 및 YANGON GRACE THEOLOGICAL SEMINARY(4년제 신학대학, 학장 신우영)와 진행했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와 정치적 혼란으로 해외 대학 진학을 위한 유학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미얀마의 현지 상황에서 우수 유학생 선발과 교육 협력을 하기 위함이다. /정은성 기자



우석대, 29~30일 '전북지역 해킹방어 훈련캠프'

우석대학교(총장 남천현)는 29~30일 이틀 간 '전북지역 해킹방어 훈련캠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캠프는 우수대학을 비롯해 전북대·원광대·전주대·호원대·전주비전대 재학생 45명이 참가 ICT 융합 정보보안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진행된다.

캠프는 전주캠퍼스 정공관 4층 정보보안학과 실습실에서 1일차 모의해킹 이론교육과 2일차 해킹방어대회(CTF) 실습 등으로 이뤄진다.

특히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사이버훈련 전문가와 전북지역 공공기관·보안전문가가 공동 진행한다. /정은성 기자



임실 성수면, 소총제례음식 전수 교육 진행

성수면이 주민 중심의 행복 거점을 만들어 가는 기초생활 거점사업(추진위원장 박강철)의 일환으로 '소총제례음식 전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소총제례 전통을 지켜온 지역주민이 전문 강사로 참여하여 지난 17일부터 지역 내 전통문화 계승에 관심 있는 성수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총 6회에 걸쳐 탕(湯), 육포(炙) 등 음식 실습교육과 전통 제례 절차에 따라 제향을 지내는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소총제례행사는 1907년 일제에 의해 고종이 강제로 양위되고 군대기예산되자 의령을 일으켜 투쟁하다 순국하신 이석용 의병장파 28의사사위를 위로하고 기리기 위한 제례 의식이다. /임실=진홍영 기자